

제 7회 『정치철학이란 무엇인가』_레오 스트라우스

자유인문학회 손경모 외 4명
2020년 6월 28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유인문학회 사무실

『법률』은 <신(神)>이란 단어로 시작한다. 그와 같이 시작하는 것으로는 플라톤의 대화편들 중 유일하다. 신이란 단어로 끝나는 플라톤의 유일한 대화편이 있다. 그것은 『소크라테스의 변명 Apology of Socrates』이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라는 한 늙은 아테네의 철학자는 신성모독과 아테네 국가가 믿는 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혐의에 대해 자신을 변호한다. 철학과 국가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법률』에서 아테네의 늙은 철학자는 철학과 국가 사이의 갈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철학과 국가 사이의 조화를 가져다줄 신성모독에 관한 법을 제안한다. 『법률』에 나타난 국가의 모든 시민이 받아들여야 할 신들이란 증명될 수 있는 존재들이다.

법이란 가치(사람들 사이의 관습)에서 온다.
그런 가치나 가치를 형성하는 문자, 형이상학적인 것들은 신에게서 온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모습들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이 연로한 아테네의 철학자는 아테네 국가에 의해 죽을 운명에 처해진다. 그는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거부한다. -중략- 그의 거부는 그러한 상황들에서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심사숙고에 기초한 것이었다. -중략- 크레타로 탈출한다는 것, 크레타에서 산다는 것은 아테네에서 죽는 것에 대한 대안이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죽기로 선택했다. 소크라테스는 크레타에 철학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보다 아테네에 철학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선호했던 것이다. 만일 아테네 철학의 미래가 그리 위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크레타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었을 수도 있다. 그의 선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선택이었다.

침묵해왔던 아테네 철학,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으로 인해 계몽하게 된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사상과 철학이 보존되었다. 그의 희생이었다.

입법가들에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입법가는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갖는다. 입법가는 통치제이며, 통치제의 성격은 사회 및 정치적 질서 전체, 즉 폴리테이아 politeia⁷⁾ 혹은 정치체제에 의해 결정된다. 법률들의 기원은 정치체제이다. 그러므로 정치철학의 핵심논제는 법률이 아니라 정치체제인 것이다. 이와 같이 법률들이란 그 성격상 파생적인 것이라는 점이 인지될 때 정치체제는 정치사상의 중심 주제로 등장한다.

⁷⁾ (역주) <polis>에서 파생한 그리스어로서 polis의 내적 구조, 즉 정치체제 또는 국가체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정체로 번역된다. -중략- <politeia>는 현대 정치학에서의 정치체제, 즉 경제구조나 사회체제와 구분되는 권력구조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polis>라는 국가적 삶의 구조 전반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이다.

폴리테이아는 일반적으로 정체, 정치체제로 번역되며 이념적이면서 제도적이기도 하다.

<법>으로 적절하게 번역될 수 있는 성서의 용어는 많다. 그러나 정치체제에 해당되는 용어는 성서에 없다.

인간세계의 정치체제는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다.
신의 세계는 완전하기 때문에 방법, 정치체제가 필요하지 않다.

정치체제란 질서, 형식이며, 그것은 사회에 성격을 부여한다. 정치체제는 그러므로 삶의 특정한 양식이다.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형식이며 사회를 살아가고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양식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양식은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인간이 지배적이냐 또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인간에 의해서 사회가 지배받느냐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다. 정치체제는 전체인데,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대체로 파편화된 형태로 보는 습관이 있다. -중략- 삶이란 어떤 목표를 향한 활동이다. 사회적 삶이란 오직 사회에 의해서만 추구될 수 있는 목표를 향한 활동이다.

정치체제가 전체라는 의미는 국가의 모든 일들을 포괄해가며 진화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와 다른 파편적인 것은 포괄적이지 않고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으며, 전체를 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목수는 공사장에 가면 튀어나온 못만 보이는 법이다.

최선의 정치체제가 무엇이나 하는 질문이 고대 정치철학을 이끌었던 것이다. 최선의 정치체제의 구체적 실현은 자연적으로 서로 떨어지려는 것들을 어떻게 함께 만나게 하거나 일치하게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은 우연에 달려 있다.

삶과 죽음.

국가를 계속 경영 시키려는 것.

국가를 포함해 모든 조직은 생존과 동시에 망하려는 욕구도 가지고 있다.